

탈북학생의 학교급 이동에 따른 적응 양상 분석: 출신배경 공개여부를 중심으로*

강 구 섭**

초 록

본 논문은 정규학교 재학 탈북학생이 상급학교로 올라가는 학교급 이동 단계에서 출신배경 공개여부가 학교생활, 교우관계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탈북학생의 교육 지원 방안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학교급 이동 후 상급학교에 진학한 탈북학생 6명의 학교급 이동 전후의 학교생활, 교우관계 특성을 출신배경 공개 여부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탈북학생의 학교급 이동 전 단계에서 보였던 학교생활, 교우관계 특성이 이동 후에도 계속 나타났고, 탈북학생의 개인 특성(외형적 특성, 심리적 특성, 가정 상황 등)이 학교급 이동 전후 학교생활, 교우관계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북학생들은 학교급 이동 단계를 출신배경 공개 여부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탈북학생의 개인 특성이 출신배경 공개여부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급 이동 단계의 탈북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으로 새로운 학교생활, 교우관계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체계적 지도, 교우관계 형성을 위한 교사의 적극적 역할 수행, 탈북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북학생의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출신배경 공개 문제가 탈북학생의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6명의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는데 향후 출생지역, 학교급, 일반적 적응양상 등의 면에서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탈북학생에 대한 추가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탈북학생, 학교 적응, 학교급 이동, 출신배경 공개

* 본 논문은 필자가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한 한국교육개발원의 2016년 기본연구과제(김정원 외,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연구(I))의 내용(pp. 152~168)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 전남대 윤리교육과 부교수, gusupkang@gmail.com

I. 서 론

탈북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서 학교를 통한 교육 지원은 이들의 남한생활 적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교교육을 통해 탈북학생이 남한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신일, 1993 참조). 일반적으로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학교급 이동 상황은 학생에게 적지 않은 긴장과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정섭, 윤채영, 이종화, 2011). 특히, 탈북학생에게 있어서 학교급 이동 상황은 일반 학생의 경우와는 다른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남한 학교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학생에게 기존의 익숙했던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 학교급 이동 상황은 매우 어려운 과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강구섭, 김현철, 이향규, 한만길, 2015). 다른 한편, 학교급 이동의 상황은 탈북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출신배경 공개 여부를 이전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전 학교에서 출신배경이 공개된 상황이었을 경우 이동 후 이를 비공개로, 비공개 상황이었을 경우 공개 상황으로 바꿈으로써 자신의 생활에 유리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교급 이동 단계는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탈북학생이 학교급 이동 단계에서 출신배경 공개와 관련하여 나타내는 적응 양상을 분석하고 적절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들의 원만한 적응을 지원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탈북학생의 학교급 이동 과정에서 출신배경 공개여부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학교급 이동 단계 탈북학생의 적응 지원 방안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탈북학생의 학교 및 사회 적응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탈북학생의 특성에 근거하여 이들이 사회 및 학교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한만길, 김윤영, 이향규, 채정민, 2010; 강현민, 최희, 2016; 노은희, 오인수, 2017). 본 연구는 학교급 이동 단계에서 출신배경 공개 특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적응 양상을 분석하고 관련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탈북학생 적응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주제를 다뤘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의 의미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 주소, 가족, 직장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 이외의 지역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법제처, 2018). 반면, ‘탈북학생’이라는 용어는 법률상의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태어났거나 부모 가운데 한쪽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3국에서 태어난 6~25세 연령의 북한이탈주민을 의미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이처럼 북한 혹은 제3국에서 태어나 생활하다 남한에 입국한 탈북학생은 남한 생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러한 탈북학생의 남한 학교 적응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복합적인데 먼저 탈북학생의 내적요인 측면에서 김형태, 백혜정 등에 따르면 탈북학생이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심리적 상흔 및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이 남한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백혜정 외, 2006; 정병호, 양계민, 이향규, 임후남, 황순택, 2007). 이러한 심리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학습, 관계 형성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적지 않은 탈북학생이 북한 혹은 중국에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남한에 입국하면서 기본적인 경험 부재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백혜정 외, 2006). 한만길은 탈북학생을 둘러싼 외적 환경요인 측면에서 이들의 적응 문제를 다뤘는데, 남북한 교육과정의 차이, 이질적인 학교문화, 남한학생의 개인주의적 성향, 사교육 의존경향 등의 차이로 인해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하였다(한만길 외, 2009). 김정원 외는 탈북학생의 가정 측면에서 탈북학생이 탈북학부모로부터 학교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도 이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김정원, 강구섭, 김지수, 2014). 즉, 낯선 한국사회에 적응해야하는 탈북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지원에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녀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남북하나재단, 2017). 탈북청소년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이 중국 출생 탈북청소년보다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김정원 외, 2014), 성별 측면에서 여학생이 학업, 생활 측면에서 남학생에 비해 양호한 적응 수준을 보였다(한만길, 김일혁, 이향규, 윤종혁, 2009; 박윤숙, 2006). 거주기간 측면에서 남한거주기간이 1.5년 미만의 초기단계에 있는 경우,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양영은, 2010), 거주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회문화 차이, 일반적 상식 및 정보의 결여,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은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거주기간이 늘어나도 학업부진, 심리적 문제로 인한 적응상의 어려움은 계속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강구섭 외, 2015). 탈북학생의 남한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고찰 결과들은 이들의 적응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탈북학생들이 처해 있는 개별 단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이들의 적응 지원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 탈북학생의 학교급 이동 상황과 출신배경 공개

가. 학교급 이동 상황

일반적으로 상급학교로의 학교급 이동은 학생들에게 긴장과 어려움을 동반하는 전환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학교급 이동 후 학업 등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Galton, 2009; Mullins & Irvin, 2000; Paul, 2014). 특히 학교급 전환 시기는 발달 측면에서 사춘기 등의 시기와 겹치면서 정신적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기도 한다(Simmons, Burgeson, Careton-Ford & Blyth, 1987). 우리나라에서는 학교급 이동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는데 대체로 학업, 진로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 시기의 학습 지원과 관련된 연구가 이뤄졌다(안태연 외, 2015). 김태은 외에 따르면 학생들은 전환기 환경에서 학습부담 증가, 교사와의 관계변화, 친구관계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며 이로인해 심리적 안정감이 낮아지고 행복감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은 외, 2015). 구장희는 낙관적 성격의 학생 일수록 학교급 이동 후 교사, 친구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태도를 보이며 문제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걱정하기보다 도움을 청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결과적으로 행복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의견을 보였다(구장희, 2017). 이를 통해 학교급 이동

상황은 학생에게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는 전환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개인 특성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반응과 방식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탈북학생의 학교급 이동과 출신배경 공개

탈북학생이 학교급 이동 상황에서 나타내는 특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대체로 탈북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이동전에 유지 하였던,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거나 최소한 익숙했던 환경이 바뀐다는 측면에서 학교급 이동은 이들에게 어려움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전에 안정적인 생활하였기보다 그렇지 않았던 경우, 이동 후 상황에서의 적응이 더 어렵게 인식될 수 있다. 불안정했던 이동전의 학교생활 경험으로 인해 이동 후 새로운 시작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할 것은 탈북학생들은 대체로 자신의 출신배경이 학교에서 알려질 경우 그것이 자신의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여, 출신배경 비공개 상태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강구섭, 김윤영, 김현철, 이향규, 한만길, 2015; 이을용, 2015). 또한, 입국 초기에 억양, 행동방식 등의 외형적 특성으로 인해 출신배경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외적으로 표시가 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출신배경을 숨기려는 경향을 보인다(강구섭 외, 2015). 다른 한편으로 출신배경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하면서, ‘친구들에게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강구섭, 김윤영, 김현철, 이향규, 한만길, 2015), 이러한 경우 상급학교 진학 후 새로 사귀는 마음에 맞는 친구에게 이를 알린 후 심리적 부담을 덜고 한층 더 안정적으로 생활하기도 한다(강구섭 외, 2015). 즉, 안정적 관계에 있는 친구와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심리적 부담을 덜고 자신감을 느끼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학기 초반에 출신배경을 알리지 않고 생활하면서 학교생활의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만 중간에 밝히는 것에 부담을 느껴 계속 어려움을 겪으며 생활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신학기 시작 단계가 일부 친구에게 자신의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에, 탈북학생에게 학교급 이동 상황은 그들의 학교생활, 교우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출신배경 공개 여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이자 기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급 이동 후 학교에서 자신과 교우관계 혹은 교사와의 관계를 이전과는 다르게 재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탈북학생의 출신배경 공개는 단순히 그들의 출신지, 부모 등 개인 정보 공개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출신배경 공개 후 학생의 개별 특성은 고려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있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독재, 빈곤, 반인권), 적대감정, 거부감이 낙인으로 작용하여 자칫 탈북학생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탈북학생의 개인 특성, 환경 특성에 따라 출신배경 공개, 비공개 상황의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 이에 탈북학생들은 출신배경 공개 혹은 비공개가 가져올 결과를 고려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이를 결정한다.

소수자로서 개인 정체성 공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탈북학생의 출신배경 공개와 유사한 성격의 사례로 입양아동의 입양사실 공개 문제를 살펴볼 수 있으나 입양사실의 공개 여부가 이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직 없다(권지성, 변미희, 안재진, 최운선, 2010)¹⁾.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급 이동 전후 학교생활, 교우 관계에 출신배경 공개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학교급 이동 상황 뿐 아니라 탈북학생 전체 학교생활 지원 측면에서, 더 나아가 소수자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회적응 연구 사례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탈북학생의 학교급 이동 과정에서 출신배경 공개 여부에 따른 학교생활, 교우관계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사례별 분석을 통해 학교급 이동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변화를 수반한 새로운 환경에서 탈북학생이 보이는 학교생활 특성을 학교급 이동 전과 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학교급 이동 전 실시한 면담 자료를 토대로 개인의 전반적인 적응 특성, 이동 전 학교에서의 학교생활, 교우관계 특성, 출신배경 공개 여부를 파악하였다. 이후, 학교급 이동 후 실시한 면담자료를 통

1) 입양아동의 배경공개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자신의 입양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경우가 40.2%로 나타났고, 과거에는 얘기했지만 더 이상 하지 않는다가 21.6%로 나타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공개하는 경우 거리낌 없이 공개하는 경우가 15%로 나타났고, 친한 친구들에게만 공개하는 경우가 13.%로 나타났다.

해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특성을 출신배경 공개여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외형적 특성, 심리적 특성, 가정 상황이 출신배경 공개 변화 여부의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급 이동 전후 출신배경 공개 여부에 따른 학교생활 및 교우 관계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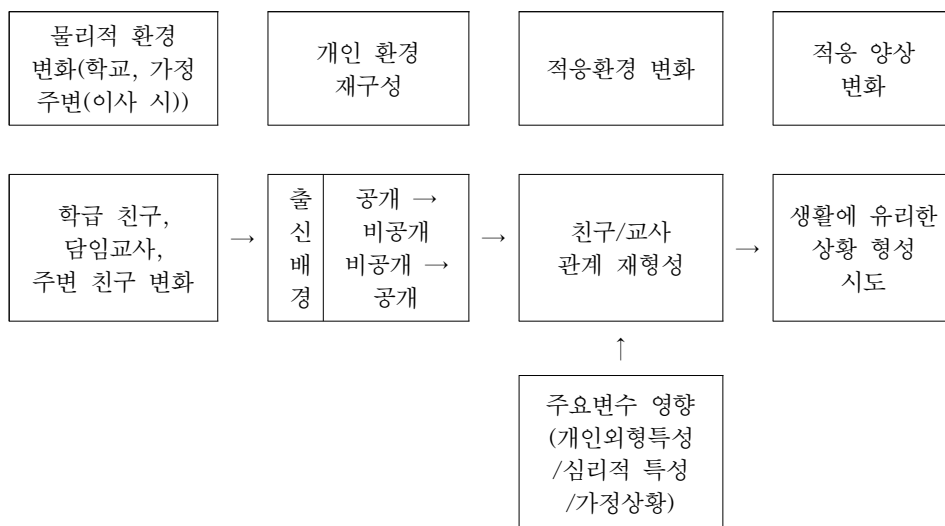


그림 1. 분석방법 개요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 연구의 일환으로 실행한 질적 면담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상기 연구에서는 매년 15~30명의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질적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70여명의 탈북 청소년과 그 학생의 학부모, 교사가 1회 이상 심층면담에 참여하였다. 심층 면담 결과 가운데 성별, 출생국, 한국생활 연한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한 각 2명, 총 6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심층면담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 면담에 참여한 사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의 한계는 추후 추가 조사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분석 대상 탈북학생 정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학교급 이동에 따른 적응 양상 분석 대상 사례²⁾

유형	성명(번호)	성별	출생지	출생년도	면담 시기
초등학교 → 중학교	A1	여	북한	2000	2012,13
	A2	남	중국	2001	2013,14
중학교 → 고등학교	B1	여	북한	1996	2013,14
	B2	여	북한	1993	2011,12
고등학교 → 대학교	C1	남	북한	1994	2014,15
	C2	여	북한	1995	2014,15

본 연구에서는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면담자료를 분석하였다. 질적 내용 분석은 텍스트의 주요 맥락, 내포된 의미체계, 의미 있는 단일사례 등 전체 텍스트에 내포된 주요 맥락체계나 함축된 내용의 특성과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방법이다(Mayring, 2002). 이를 위해 1) 연구문제 및 자료 선정, 2) 분석내용에 따른 심층 분석, 3) 분석 내용 해석의 절차를 거친다(Mayring, 2002). 이를 통해 각각의 단일 사례가 가지고 있는 개별 특성에 입각해 탈북학생의 학교급 이동 상황에서 출신배경 공개 여부에 따른 적응 양상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Mayring, 2002).

2) 자료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탈북년도 등의 개인 정보는 제시하지 않음

III. 탈북학생의 학교급 이동에 따른 적응양상 분석

1.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학교급 이동 사례

1) A1

- 이동 전: 개인의 외형적 특성에 기인한 소극적 태도, 심리적 위축 상태, 출신배경이 알려질 것에 대한 불안

A1은 북한출생으로, 가정으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편이었고, 과제중 등의 외형적 특성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였고, 교우관계도 원활하지 않았다. A1의 담임교사는 A1가 원래는 쾌활한 성격인데 자신감이 없고, 자기표현을 하지 않으며 친구들과도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저학년 때 북한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빨갱이’라고 불린 적이 있어서 6학년에서는 출신배경을 알리지 않아, 학급에 A1의 출신배경에 대해 아는 친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1은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의식하며 위축되어 있었다. 즉, 학교급 이동전 A1은 자신의 개인 외형적 특성, 가정의 미진한 지원 뿐 아니라 이전에 출신배경이 알려지면서 겪었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고 학교생활과 교우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

어머니: 자기 말로 자기 친구 몇 명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생일파티 같은 것에 초대받는 게 한 해에 한사람? 어린애.. 친구관계가 별로 시원치 않아요.

교사: 탈북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애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이 알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반 아이들도 A1가 탈북이라는 것을 모르죠.

■ 이동 후: 심리적 영향 지속, 출신배경이 알려질 것에 대한 불안 지속, 학교급 이동 상황이 새로운 불안 유발

학교급 이동 후에도 A1은 친구관계에서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주로 방과 후에 만나는 유사한 배경의 친구들과 어울려 지냈다. 담임교사는 학급 친구들이 A1에게 잘 대해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A1이 학급에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친구에게 집착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는 경우가 많아 학급 친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중학교에서도 A1은 자신의 출신배경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것이 알려지면서 겪었던 경험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출신배경에 대해 알고 있는 초등학교 친구들이 중학교에서 그것을 알릴지 모른다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다. 대체로, 학교급 이동 후에는 A1의 외형적 특성보다는 심리적 특성이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학교생활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였고 학교급 이동전과 유사하게 학교생활, 교우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특성을 나타냈다. 또한 학교급 이동전, 출신배경이 공개되는 것에 극도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경향이 학교급 이동 후에도 계속 나타나면서 출신배경 공개를 희망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즉, 개인의 심리적 특성, 이전 경험의 영향으로 학교급 이동 상황이 출신배경 공개여부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활용되지 않았고 학교급 이동 후 새로운 환경에서 출신배경이 공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A1: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그냥 조용하게 있어요.

면담자: 그냥 조용하게 있어?

A1: 방과후가 되면 그냥. 내 친구들이랑 있으니까...

2) A2

■ 이동 전: 가정환경에 기인한 심리적 위축, 이전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친구관계, 출신배경 비공개

A2는 중국에서 출생해 6세 무렵 한국에 입국해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건강 때문에 가정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A2는 무기력하고 소극

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학업수준도 매우 낮았다. A2를 5학년 때부터 알고 있는 담임교사는 A2가 다소 좋아졌지만 학교생활에서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친구 관계가 좋아진 것도 5학년 때와 비교할 때 학급 내에 A2를 수용하는 분위기가 있어서라고 했다. 친구도 학급친구가 아닌, 학교 밖의 탈북학생 대상 프로그램에서 만나는 탈북배경 친구들과 주로 친하게 지냈다.

A2는 자신에 대해 밝히지 않아 학급친구들이 A2의 출신배경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데, 남한 입국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해 중국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도 공개하지 않은 이유였다. 즉, 학교급 이동 전 A2는 가정환경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이라는 개인 특성의 영향으로 학교생활, 친구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

교사: 교우관계는 작년에는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 올해는 아이도 성장해서 눈치도 생기고 학급에 같이 장난을 받아줄만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지 교우관계가 좋은 편이에요.

교사: 거의 대부분 모르는 것 같고 A2도 그것을 안 알렸으면 하는 눈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친화적인 생각보다는 굳이 따지자면 별 생각이 없는데 굳이 따지면 안 좋게, 더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 이동 후: 개인배경 특성으로 심리적 위축 상황 지속, 유리한 환경에서 안정적 생활, 출신배경 비공개 태도 유지

A2의 어머니는 학교급 이동 후 초반에는 힘들었지만 이후 많이 나아졌다고 했다. A2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와 중학교에서 새로 만난 친구와 지낸다고 했다. 담임교사는 A2의 교우관계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6학년 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가 다른 학교에 입학하면서 심리적으로 편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A2에게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닌, 외부환경이 A2에게 유리하게 구성되면서 안정을 느끼고 있었다. 담임교사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학교에서 A2의 출신배경에 대해 모르고 있고, A2와 어머니 또한 그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조심한다고 했다. 즉, 학교급 이동 후 학교생활, 교우관계가 일부 좋아졌지만 개인의 심리적 상황은 학교급 이동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가정상황,

심리적 특성이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학교급 이동 후에도 출신배경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출신배경 공개 관련, 이동전과 유사하게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였고 학교생활, 교우 관계 측면에서도 이동전의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있는 특성이 계속 나타났다.

면담자: 일반 아이들도 아나요?

교사: 거의 몰라요. 기초는 아이들이 대강 아는데요, 탈북은 잘 몰라요. 특히 나중에서야 제가 다른 교과 선생님께도 얘기하면서 나왔지만 A2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래 생활을 하다보니까 티도 안 나지만 전혀 선생님들이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2. 중학교 → 고등학교 이동 사례 분석

1) B1

- 이동 전: 출신배경 공개 사실 보다, 개인의 외적 특성이 학교생활, 교우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

북한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다가 한국에 입국한 B1은 학업 성적이 부진하였고, 작은 키, 말투 등으로 학교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B1은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 때문에 힘들다고 했다. B1 어머니는 B1의 출신배경이 알려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지만 담임교사는 B1의 출신배경이 알려졌다는 사실 보다 B1의 공격적인 행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B1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만나는 선생님의 정서적 도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중학교 3학년 말 가족이 이사를 하면서 지역아동센터에도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즉, 학교급 이동 전 B1은 외형적 특성, 행동방식 때문에 학교생활, 교우관계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스스로 출신배경을 공개했지만 공개 자체보다, B1의 개인 특성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원활하지 않았다.

면담자: 애들하고는 반대구나. 학교에서 친한 친구 있어요?

B1: 없는데요.

면담자: B1가 학교에 들어갈 때, 북에서 왔다는 걸...

어머니: 얘기 했죠.

어머니: 이제 가게 되면 000 학교가 없어지는 거죠. 애가 그럼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

■ 이동 후: 개인의 외적 특성이 학교생활, 교우관계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 출신배경이 비의도적으로 공개

B1은 학교급 이동 후, 중3 후반에 이사한 집 근처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생활이 이전보다 더 힘들다고 했다. 학급친구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대하고, 나이 차이도 있어 힘들어 했다. B1은 이사 후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역아동센터를 그리워했다. B1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중학교 친구들이 같은 고교에 진학하면서 자신의 출신배경이 알려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반면, 담임교사는 알려진 출신배경 보다는 B1의 태도로 인해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B1가 친구를 사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환경을 구성하려고 했지만 B1의 태도로 교우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정리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동한 B1의 사례에서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개인 특성이 학교생활, 교우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학교급 이동 상황이 출신배경 공개여부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활용되지 않았다. 즉, 출신배경 공개 자체 보다 개인 특성이 학교생활, 교우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의도하지 않게 출신배경이 주변에 의해 알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면담자: 지금 학교 다니면서 제일 좀 힘든 게 뭐야?

B1: 친구가 없는 거요.

교사: 학기 초에 단짝친구를 만들어 주려고 누가 제일 친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필요 없다고, 보호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거절하더라고요. 마음을 다 닫아 버리고.

교사: 학기 초에는 B1이 북한 그런 거를 어떻게 애들이 알았나 봐요. 그래서 바로 알려지더라고요.

2) B2

- 이동 전: 외형적 특성에 기인한 자신감 결여, 관계의 상처로 친구관계에 소극적 태도, 의도하지 않은 출신배경 공개

북한에서 출생한 B2는 어머니가 먼저 탈북해서, 북한에서 혼자 어렵게 지내다가 한국에 왔고, 건강이 좋지 않아 학교를 자주 결석하였다. 외모로 인해서 놀림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 자신감이 없어서 작은 일에도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로 인해 B2는 친구들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친구가 없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B2를 알고 있는 B2의 담임교사는 중3이 되면서 B2의 학교생활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소극적이고 친구 관계가 어렵다고 했다. 어머니는 B2와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학생을 통해 의도하지 않게 출신배경이 알려져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반면, 담임교사는 학급 친구들이 B2가 북한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B2를 무시하거나 헐뜯지는 않는다고 했다. 즉, B2는 의도하지 않게 출신배경이 공개된 상황 보다 개인의 특성, 관계의 상처로 인해 친구관계 형성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보였고 결과적으로 학교생활,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B2: 재네들도 뒤에서 또 욕할텐데 그냥 무시해요. 인사하면 그냥 받아주고, 꼬게는 안 말해요.

B2: 처음엔 북한이라고 안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인 애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오면서 점점 퍼지고...

- 이동 후: 이전 심리적 상처의 영향 지속, 자연스런 출신배경 공개에도 학교생활, 교우관계에서 계속 어려움 경험

B2는 학교급 이동 후 이동 전 보다는 좋아졌으나 여전히 학급에 친한 친구가 없었고 친구 관계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학기 초에 우연히 나이가 많다는 것이 알려진 후 학급 친구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생각에 더 자신을 드러내

지 않고 생활했다. 담임교사는 B2가 수업시간에 출신배경을 공개했는데 학급에 B2를 이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출신배경 공개가 B2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담임교사는 B2가 이전에 경험한 상처 때문에 계속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리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동한 B2의 경우, 학교급 이동 상황이 출신배경을 공개하는 기회로 자연스럽게 활용되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B2의 학교급 이동 후의 학교생활, 교우관계 변화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B2의 개인특성이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면담자: 진짜 친한 친구 없어? 같이 밥 먹는 친구?

B2: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좋게 끝까지 가는 애가 없어요.

교사: 국어시간에 자기소개 하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때 자연스럽게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면담자: 그러면 반 친구들은 그것은 알고 있겠네요.

교사: 네. 탈북인 것은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초기에도 좀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있고, 탈북 친구도 있고 그렇다 하면서 그런 친구들을 잘 보듬어주도록 훈화를 몇 번 하고 그래서..

3. 고등학교 → 졸업 1년차 이동 사례

1) C1

■ 이동 전: 안정적 개인 특성, 학교생활 및 교우 관계 무난, 출신배경 비공개 상태

C1은 엄마의 재혼과 함께 생긴 새아버지로부터 그간 충족되지 못했던 관심과 도움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학업은 부진했지만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학급에 알려졌지만 학급 친구들과 무난하게 지내고 있었다. 고3이지만 전문대 진학을 계획하고 있어서 학업에 대한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C1은 학교에서 출신배경

을 밝히지 않고 생활했는데, 고등학교 초반에는 그것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꼈지만 3학년이 되면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C1은 전국에서 다양한 친구들이 모이는 대학에서 출신배경을 공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대학 진학 후 출신배경을 공개하려고 했다. 즉, C1은 개인 특성 측면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다. 출신배경은 학교급 이동 후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C1: 평범하게 그냥 지낸 것 같아요. 평범하게. 빼어나지 않게. 보통학생들이랑 같이.

면담자: 지금은 학교에서는 아직, 친구들한테 오픈을?

C1: 예. 오픈 안했고. 대학교가서는 전국에서 오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저를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말하고, 편하게 말하고 다니면...

■ 이동 후: 안정적 개인 특성 유지, 출신배경의 자연스러운 공개 후 자신감 획득

학교급 이동 후 C1은 학교급 이동전과 유사하게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교우관계 측면에서 이동전 단계와 유사하게, 소수의 학교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학교 밖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었다. 특히, C1은 신입생 행사에서 출신배경을 공개하였고, 이후 더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었다고 했다. 즉, C1은 학교생활의 출발점인 신입생 행사에서 출신배경을 공개함으로써 학교급 이동 상황을 자신에게 용이하게 재구성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C1이 학교급 이동 상황을 출신배경 공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C1이 학교급 이동 전후 일관되게 심리, 교우관계 등의 측면에서 안정적인 개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면담자: 언제 처음 얘기했어? OT때?

C1: OT 끝나고 나서 처음 우리 반, 한 30명 정도 모여 있는 반이 있는데 그 반이 단합, 단합을 하자는 의미에서 같이 모여서 술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자기소개할 때 내 차례 왔을 때 그냥 얘기했어요.

2) C2

■ 이동 전: 안정적 개인 특성, 이사 후 자신감 있게 생활, 출신배경은 비공개

C2는 부모님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몇 명의 친구를 깊이 사귀며 잘 생활하고 있었다. C2의 담임교사는 C2가 활발한 성격이지만 자신의 출신배경이 드러날까 염려하여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C2는 학교에서 출신배경을 공개하지 않아 그에 대해 아는 친구가 거의 없었다. 특히, C2 가족은 남한에서 지역 방언이 강한 B시에 거주하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C2는 자신을 B시 출신이라고 말하고 B시에서 습득한 억양과 사투리를 썼다.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일부 교사를 제외한 누구도 C2의 북한출신 배경에 대해 몰랐는데, 이것이 C2가 학교에서 자신감 있게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어머니도 C2가 학교에서 B시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C2의 얼굴 표정이 바뀌고 자신감이 생기는 등 큰 변화가 생겼다고 했다. 즉, C2는 개인 배경 측면에서 안정적인 특성을 보였고, 특히 이사와 함께 출신배경이 자연스럽게 감춰지면서 전체 학교생활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했다.

C2: 거기 있을 때는 (탈북학생이라는 것을) 다 알았잖아요. 친구들이. 근데 여기 애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편한데. ... 선생님들만 알아요. 몇 명만

어머니: 북한에서 온 걸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B에서 살다가 B고 다니다가 올라오다 보니까, 애들한테 B고에서 왔다. 이게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자연히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애한테 좋은 것 같아요.

■ 이동 후: 안정적 생활 유지, 출신배경의 부분적 공개

학교급 이동 후 C2는 이전과 유사하게 잘 생활하고 있었다. 학교급 이동전과 유사하게 소수 친구와 잘 지내고 있었고 특히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더 밝게 생활하고 있었다. C2는 학과에서는 자신의 출신배경에 대해 알리지 않았고, 남자친구에게는 얘기

하지 않으면 숨긴 것으로 여겨질 것 같아서 얘기했는데 남자친구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 안심했다고 했다. 정리하면, C2는 학교급 이동 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개인 특성을 보였지만 학교급 이동 후 상황을 자신의 출신배경을 공개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지는 않았고 부분적으로만 활용하였다. 즉, 개인 측면에서 안정된 특성을 보였지만, C1 사례와 다르게, 그러한 특성이 출신배경 공개여부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C2: 북한에서 온 거 (남자친구에게) 다 얘기...

면담자: 아, 안다고? 응~ 다른 친구들은?

C2: 몰라요. 아직. 딱히 굳이 알리고 싶지는 않은...

C2: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뭔가 숨기는 것 같잖아요. 그거 하나면 딱히 없는데.

굳이 숨기려고 한 게 아닌데 숨겨진 거잖아요.

IV. 결 론

1. 논의

본 논문은 학교급 이동 단계 탈북학생의 학교생활, 교우관계 특성을 출신배경 공개 여부 측면에서 분석하고, 탈북학생 교육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학교급 이동 상황에서 학교생활, 교우관계 측면에서 학교급 이동 전 상황이 이동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학교급 이동 전 단계에서 분석대상의 학교생활,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개인특성이 학교급 이동 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쳤다. 출신배경 공개여부 측면에서, 학교급 이동 전 단계에서 출신배경이 알려질 것을 염려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동 후에도 그에 대해 알려지지 않기를 희망했고 결과적으로 학교급 이동 단계가 출신배경 공개 여부

를 새롭게 구성하는 기회로 활용되지 않았다. 대체로 학교급 이동 자체의 영향보다는 학교급 이동 후의 상황이 학생의 생활에 유리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학교급 이동 사례에서도 분석대상의 개인 특성이 학교급 이동 전후 상황에서 학교생활, 교우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급 이동 후에도 학교급 이동 전과 유사한 학교생활, 교우관계 특성이 나타났다. 출신배경 공개여부 관련, 한 명의 사례(B2)에서는 학교급 이동 단계가 출신배경 공개여부를 재구성하는 계기로 활용되었지만 그것이 학교급 이동 후 학교생활, 교우관계의 개선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또한, 한 사례(B1)에서는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출신배경이 공개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출신배경 공개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특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중등에서 고등으로의 이동 사례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 교우관계를 위해 담임교사가 적극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그것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동 후 환경이 학생생활에 용이한 환경인지 여부의 효과가 초등에서 중등으로 이동한 경우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이동에서도 학교급 이동 전의 개인 특성이 학교급 이동 후에도 계속 유사하게 학교생활,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정적인 개인 특성이 학교생활, 교우관계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은 이들이 학교급 이동 후 자신의 출신배경 공개 여부를 변화시키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한 사례(C1)에서는 학교급 이동 상황에서 출신배경을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환경을 재구성하였고, 다른 사례(C2)에서도 안정적인 개인 특성에 기반하여 부분적이지만 출신배경을 공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종합하면, 탈북학생들은 학교생활, 교우관계 측면에서 학교급 이동전에 보였던 양상을 학교급 이동 후에도 계속 유사하게 나타냈다. 또한 개인특성에 기반을 둔 학교생활, 교우관계 특성이 학교급 이동 단계에서 출신배경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개인 특성으로 인해 학교급 이동 전후 불안정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 출신배경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고, 안정적인 개인 특성을 보이는 경우 이를 변화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지만, 학교급 이동 전 출신배경이 공개되어 있던 탈북학생이 학교급 이동 후 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의해 공개되는 상황이 나타나, 출신배경 공개 여부를 탈북학생이 전적으

로 본인 의지대로 결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 이동과 같은 시기에 이뤄진 이사 등의 환경 변화는 탈북학생의 이후 생활에 상이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사가 자신의 출신배경을 완전히 감출 수 있는 기회(C2)가 되기도 하였지만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학교 이외의 다른 집단(지역 아동센터)과 멀어지는 결과(B1)를 가져 오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타의로 출신배경이 공개되면서 경험했던 심리적 상처가 지속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등 환경이 바뀌어도 이전에 경험했던 심리적 문제가 계속 남아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2. 정책 제언

탈북학생의 학교급 이동 단계에서 출신배경 공개 여부와 학교생활, 교우관계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학교급 이동 상황의 탈북학생 지원 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상급학교로 학교급을 이동한 탈북학생들이 이동 후 학교생활 초반 단계의 새로운 상황에서 원만히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인 학교생활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탈북학생에게, 학교급 이동 상황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상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학교급 이동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탈북학생 담당 교사가 학교급을 이동하여 진학하는 학생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미리 계획하여, 보다 준비된 상태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탈북학생이 학교급을 이동해 진학하게 되는 학교가 해당 학생에 대한 정보와 상태, 학생의 필요,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학생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지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급 이동 후 다니는 새로운 학교에서 탈북학생이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고, 특히 교우관계를 적절히 형성할 수 있도록 교사의 보다 세심한 개입이 필요하다. 탈북학생들은 자신의 출신배경 문제, 이질적인 환경에서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경우

가 많고, 특히 학급 분위기가 탈북학생을 포용하는 상황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학급생활, 교우관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차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 탈북학생 스스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생활하는 것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탈북학생이 학급 내에서 원만하게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접적으로 돕는 친구를 선정하는 등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탈북학생 스스로 안정감을 느끼는 가운데 관계를 형성하고 원만히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제공하여 일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관계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급 이동 단계를 포괄하는 전체 학교생활에서 탈북학생의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출신배경 공개 문제가 탈북학생의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다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출신배경 공개여부 보다는 학생의 개인특성이 학교생활, 교우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출신배경이 공개될 경우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신배경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있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 탈북학생이 안정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신뢰 관계에 있는 이에게 이전까지 알리지 않고 있던 자신의 출신배경을 공개하는 것이라는 감안할 때 출신배경을 적절히 공개하는 것은 탈북학생의 성장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 내재해 있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할 때 탈북학생들의 출신배경 공개 여부는 이들이 공개 후 학교에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공개 범위와 방법 등을 직접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나 장기간 비공개로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공개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적절한 시점에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서부터 자신의 배경을 공개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급 이동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탈북학생의 출신배경이 공개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그것이 탈북학생의 학교생활, 관계형성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교사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출신배경을 공개

하지 않은 탈북학생이 학급에 있는 경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학급에 형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희망과 무관하게 출신배경이 공개된 경우, 탈북학생을 직간접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을 구성해 학급에서 탈북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출신배경이 공개되는 돌발적인 상황이 탈북학생의 학교생활 및 관계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섯째, 탈북학생들이 자신의 출신배경과 관련하여 경험했던 심리적 상처가 학교급 이동 단계를 비롯한 전체 학교생활에서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하여 탈북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출신배경 공개와 관련된 이전의 상처로 인한 태도가 탈북학생 개인의 특성으로 이해되어 학교생활에 계속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이 가지고 심리적 어려움과 갈등을 보다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탈북학생이 겪은 심리적 상처에 기인한 개인특성으로 인해 학교생활, 교우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연구의 제한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연구의 질적 조사에 참여한 일부 탈북학생의 사례를 바탕으로 실행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가연구를 통해 결과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본 연구의 초등에서 중등, 중등에서 고등단계로의 학교급 이동 사례에서는 학교생활,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다뤄졌고, 고등에서 대학으로의 이동에서는 원만한 적응 상황을 보이는 경우가 분석대상으로 다뤄졌다. 이에 초등에서 중등, 중등에서 고등으로의 이동 단계에서 학교생활, 교우관계 측면에서 안정적 특성을 보이는 탈북학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고등에서 대학으로의 이동 단계에서는 부적응 양상을 보이는 탈북학생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북한출생 탈북학생 사례가 주로 다뤄졌는데 중국출생 탈북학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탈북학생의 한국생활 연한에 따른 특성, 각 학교급 이동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연령 특성 등도 함께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구섭, 김윤영, 김현철, 이향규, 한만길 (2015).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연구(VI)**.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RR 2015-1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구장희 (2017).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개인 특성 연구: 전환기 학생들의 낙관주의, 관계성 및 대처양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신일 (1993). 「**교육사회학**」. 파주: 교육과학사.
- 김정원, 강구섭, 김성식, 김지수, 최유림 (2016).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연구(I)**.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RR 2016-15).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원, 강구섭, 김성식, 김지수 (2014). **유형별 탈북학생 교육실태 및 요구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은 외 (2015). **초중학교 교수학습 연계 지원 전략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2015-5).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남북하나재단 (2017).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노은희, 오인수 (2017). 탈북학생의 남한 사회 및 학교 적응 향상을 위한 개입 방안에 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29(2), 113-151.
- 박운숙 (2006).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법제처 (20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432호.
- 백혜정, 길은배, 윤인진, 이영란 (2006).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안태연 외 (2015). 초중학교 전환기 교수학습 차이 분석: 영어 수업을 중심으로.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5(5), 159-186.
- 양영은 (2010). **학업중단 새터민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채영, 이종화, 김정섭 (2011). 자기조절학습 프로그램이 중학교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사고계발**, 7(2), 19~36.
- 이을용 (2015). 탈북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5(4), 107~131.
- 정병호, 양계민, 이향규, 임후남, 황순택 (2007). **새터민 청소년: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방안 마련연구. 수원: 경기도 교육청.

최운선, 권지성, 변미희, 안재진 (2010).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2010년 3차**

양적 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한국입양홍보회.

최희, 강현민 (2016). 탈북학부모의 자녀 학교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8(3), 87-99.

한국교육개발원 (2017). **함께 만들어요. 하나된 세상, 탈북학생 지도교사용 매뉴얼.**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2011). 탈북청소년 심층면담자료(비공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2012). 탈북청소년 심층면담자료(비공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2013). 탈북청소년 심층면담자료(비공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2014). 탈북청소년 심층면담자료(비공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2015). 탈북청소년 심층면담자료(비공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만길, 김윤영, 이향규, 채정민 (2010).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Ⅰ).** 서울: 한국

교육개발원.

한만길, 김일혁, 이향규, 윤종혁 (2009). **탈북학생의 교육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Galton, M. (2009). Moving to secondary school: Initial encounters and their effects. *Perspectives on Education*, 2, 5-21.

Mullins, E. R., & Irvin, J. L. (2000). Transition into middle school. What Research Says. *Middle School Journal*, 31(3), 57-60.

Paul, M. (2014). Managing the transition from primary school mathematics to secondary school mathematics: Teachers' and learners' perspectives. *Mediterran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5(25), 205-214.

Simmons, R. G., Burgeson, R., Careton-Ford, S., & Blyth, D. A. (1987). The impact of cumulative change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8, 1220-1234.

Mayring, P. (2002). Einführung in die qualitative Sozial forschung: Eine Anleitung zu qualitativem Denken, Weinheim.

ABSTRACT

A study on changes in the school lives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 after their transition to upper schools

Kang, Gusup*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chool lives of North Korean immigrants in terms of their disclosure or non disclosure of their personal backgrounds and origins as they undergo the process of transition to upper schools, which has a decisive effect on this transition. Besides this, the study also draws forth a number of policy suggestions which may be of benefit to them.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transition to upper schools did not have a decisive effect on the new school lives of these students, since the characteristics that were observed in their former schools were also observed in the upper schools. The North Korean youth did not utilize their transition to upper schools as an opportunity to open up about and disclose their personal backgrounds and origins. Whether North Korean migrant youth chose to disclose their background in their transition to upper schools or not,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have a meaningful effect on their decis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y that the support, effort and concern of teachers, is necessary as they transition to upper schools in order for both of them to form good relationships and a stable school life.

Key Words: North Korean migrant youth, adjustment, transition to upper schools, disclosure of personal background

투고일: 2018. 6. 9, 심사일: 2018. 8. 10, 심사완료일: 2018. 8. 27

* Associate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